

시온 주보

제2495호
2024년 3월 24일(나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
(The Descent from the Cross)

페테르 파울 루벤스
(Peter Paul Rubens, 1577-1640),
1612년, 목판에 유화, 420x310cm,
노트르담 대성당, 벨기에 안트베르펜

입당 송 | 요한 12,1.12-13; 시편 24(23),9-10

제1독서 | 이사 50,4-7

화답 송 | 시편 22(21),8-9.17-18 19-20.23-24(◎ 2~)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
젖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
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
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
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

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
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
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 음 | 마르 14,1-15,47<또는 15,1-39>

영성체송 | 마태 26,42 참조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황인수 이나시오 수사 | 성바오로수도회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떨고 번민하며 아버지께 청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6) 교부들은 이 대목을 겐세마니의 ‘싸움’(agon)이라고 부릅니다. ‘살고 싶은 인간의 뜻과 하느님을 따르려는 신적인 뜻이 맞서서 싸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후에 ‘고뇌’(agony)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겐세마니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 나의 뜻을 접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처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이들을 의연하게 맞으러 나가셨으니까요.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마르 14,42) 이후 장면부터 예수님은 철저히 수동적이지만 또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써 하느님 아버지 안에 머무르셨다면, 베드로는 아주 다릅니다. 재판 상황을 알아보려고 대제관 저택에 들어간 베드로는 추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마르 14,69) 이것은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결국 스승을 부인합니

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마르 14,71)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프게 깨닫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닭 울음소리에 울며 뛰쳐나간 베드로는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만 믿고 의지할 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철저히 자신을 비워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6-8) 이러한 비움의 길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드린 깊은 신뢰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이사 50,7)

마르코 복음서의 수난기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배신자 유다, 마음 약한 베드로, 키레네 사람 시몬, 사형집행인 백인대장…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두고 예언하였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리”(루카 2,35)입니다. 주님의 파스카 여정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요? 이 수난기 앞부분에는 옥합을 깨트려 귀한 향유를 그분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주간의 첫머리에서 있는 우리 또한 그 여인처럼 내가 가진 귀한 보물, 나의 마음속 사랑을 그분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

바로크의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이 성화는 세 폭의 제단화 중 가운데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정적이고 성스럽게 묘사된 이 장면에서 차마 당신의 아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금세 쓰러지실 듯한 모습으로 묘사된 성모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헤아려보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저도 사랑이 되겠습니다



최준익 목사모 | 가톨릭 찬양 사도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저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 시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며 그 사랑이 제 죄보다 우선한다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나 자신은? 왜 이토록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힘들까? 이미 내 안에 사랑의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요한 4,16) 저도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숨으로 태어난 존재임을 되새깁니다. 매일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ですよ.

올 사순 시기 여정은 사랑을 화두로 보내고자 합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사랑한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해 주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먼저 저 자신과 화해하여 사랑으로 가득 차 이웃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삶이 변해갈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사순 시기가 참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이번 사순 시기에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을 하는 대신,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큰 사랑에 완벽히 동참하여 완고했던 제 마음을 다시 말랑말

랑하고 빨갛게 타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제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며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매번 사순 시기가 끝나고 부활이 다가왔을 때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다른 교우들에게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올해 건네는 부활 축하 인사에는 사랑의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그분이 제 안에 다시 사시게 되었으며, 부활하신 그분과 만나 제가 다시 처음 하느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스스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웃들에게도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만나면 하얗고 맑게 변화되어, 사랑을 받기보다 주는 기쁨이 더 커질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그러니 이번 사순 시기를 보내고 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여라.”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자신이 되길 바라봅니다.

한껏
교리



성지(聖枝)는
‘거룩한 나뭇가지’라는 뜻이며,
전통적으로 종려나무나
올리브나무 가지를 사용했지만,
사철 푸른 나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측백나무나
향나무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알아보고
환영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군중이 될 것임을
되새기는 계기로도 삼습니다.

그림: 노주은(마오로팔콘엔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그리스도론)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성전에 들어섰을 때,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은 제대 위로 중심을 잡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회심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보며 알 수 없는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거나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만으로도 버티기 어려운데, 더욱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 사람들의 져값을 대신 치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 8,31 참조) 이 언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고통스러운 구원 계획을 알고 계셨으며, 이 사명을 당신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짜여진 계획이라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기만 하신 걸까요?

이러한 의구심은 이미 7세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이 예수님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신적 의지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인간적 의지를 부인하며, 단일한 신적 의지로 일축하는 이론을 ‘단의론’(Monothelism)이라고 합니다. 이 학설은 교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위축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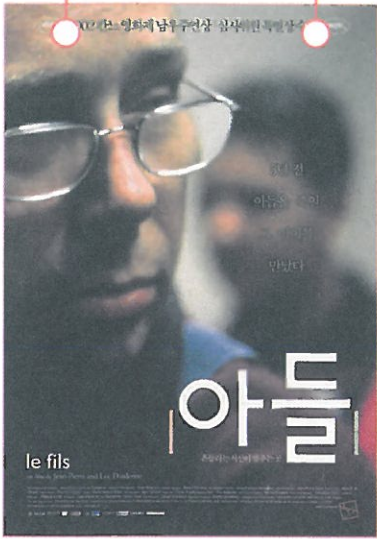
이 혼란에 한 줄기 빛을 비춘 이는 증거자 막시무스(580-662)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완벽하게 동의하셨고, 이는 가장 자유로운 동참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육화와 수난의 첫 순간은 삼위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순종과 죽음은 바로 성자의 고유한 인간적 의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 42)

성부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 성자께서 수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자께서도 자신의 고유한 인간적 의지를 신적 의지에 일치시키셨습니다. 이 일치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존귀하게 만드는 가장 내밀한 애정이 아닐까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이 담긴 십자가를요. 십자가는 죄의 결과나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순종이 일치함으로써 드러나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이 두 분이 공동으로 원하신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처음 가졌던 의구심의 답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것이 아님을, 지금까지 나의 십자가를 당신께서 대신 지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2002년작, 감독 '장 피에르 다르덴,뤽 다르덴'



영화 '아들'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 그동안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유튜브 채널 <가톨릭류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계 작가 겸 인권 운동가인 엘리 위젤(Elie Wiesel)이 쓴 자전적 소설 《나이트》는 작가가 경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어린 소년이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켜보게 만드는 대목은 이 소설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교수형을 당하는 어린 소년의 몸이 가벼워 30분이 넘도록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수감자들은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물으며 절규합니다. 이에 주인공은 자신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저 물음에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느님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장 피에르 다르덴과 뤽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화 <아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반복되듯 이어지고 있을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절규 섞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줄 작품입니다. 영화는 목수인 올리비에(올리비에 구르메 분)가 소년원 출신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 센터에서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회에 온전히 속하고자 애쓰는 청소년들에게 책임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그에게 어느 날 소년 프란시스(모간 마린느 분)가 찾아옵니다. 프란시스의 등장엔 올리비에가 당황합니다. 프란시스가 바로 5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살해 당한 아들의 복수를 다짐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감상적 차원에서 선

불리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프란시스를 향한 올리비에의 시선을 덤덤하게 따라갈 따름입니다. 그 시선은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이어서 호기심도 드러납니다. 저 아이가 왜 나의 아들을 살해했는지,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궁금증을 품은 호기심입니다. 더불어 원망의 마음, 한탄의 마음, 절규의 마음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갖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올리비에에는 프란시스를 향한 시선을 끝까지 거두지 않습니다. 목공일을 배워서 프란시스가 자립하기를 바라는 마음, 진심을 다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럼에도 내려놓을 수 없는 원망의 마음과 아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프란시스를 향한 올리비에의 시선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한 아버지 하느님의 시선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느님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감내한 고통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끌어안은 인류의 죄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연약함, 세상 안에 굴레처럼 자리 잡은 부조리, 인류 역사 속 참혹한 범죄의 결과에도 함께 하십니다. 영화 속 프란시스를 향한 올리비에의 복잡한 시선에도 하느님은 함께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지내며,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민 안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줘



임여주 아녜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새 학년이 시작되면 학생들에게는 미션이 하나 주어집니다. 바로 새 친구 사귀기 미션입니다. 누구와 친해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일 년간 학교 생활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친해지고 싶은 이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말을 거는 사람도 있고, 누가 말을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마무리된 후에 누가 전학이라도 오게 되면 그 반은 다시 한번 분주해집니다. 특히, 반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전학생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허진희 작가의 청소년 소설 《독고솜에게 반하면》은, '여왕' 단태희가 세력을 자랑하는 중학교 교실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독고솜이 전학을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왕에게 독고솜은 견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독고솜을 음해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갖은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어느새 반 아이들은 모두 독고솜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스스로 탐정임을 자처하는 서울무는 독고솜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진지하게 파고들고, 어느 날 독고솜의 신비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독고솜과 친해지고 싶은 자기 마음은요, 그날은 독고솜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을 "솜이야!"라고 불러준 날이었거든요. 울무가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준 순간 솜이의 마음이 활짝 열려 그 신비한 능력을 살짝 보여준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둘의 우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솜이와 울무는 비밀을 공유하고 비밀을 지키는 사이

가 됩니다. 서로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집니다. 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든 시간이 둘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친한 친구를 만드는 일은 생애 주기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사귀는 친구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양육자에게 의존하던 어린 시절을 지나 인간관계의 범위가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친구라는 존재를 통해 청소년은 소속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함께 경험하고 고민과 설렘을 나눌 수 있는 또래가 있다는 건 무엇보다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언제든 기댈 수 있고 내가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친구가 있기에 청소년은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씩씩하게 겪어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가 무척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혹여 친구가 없다고 해서 낙담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까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어느 날 울무가 솜이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가 꼭 나타날 겁니다. 혹은 내가 먼저 이름을 불러주고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그 마법 같은 순간이 모든 청소년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성삼일 중에는 왜 종을 치지 않나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대영광송 후’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 대영광송 전’까지 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공백기 중에 흔히 ‘딱따기’(?)라고 부르는 나무 토막을 맞부딪히는 것으로 종을 대신했던 기억들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은 이렇습니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을 친다. 이 노래가 끝나면 파스카 성야에 대영광송을 노래하기 전까지 종을 치지 않는다.” (《로마 미사 경본》 321쪽, 주님 만찬 성목요일 7항)

이 기간 중 왜 종을 치지 않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평소에 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미사 내에서 치는 종에 국한하여 살펴 본다면,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선포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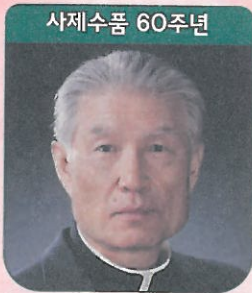
축성된 성체와 성혈이 거양될 때 종소리가 울린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부활의 찬란한 기쁨을 알리기 위해 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활 성야 때 치는 종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념하며 종을 친다면, 반대로 성삼일 중 왜 종을 치지 않는지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슬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에 따른 죽음을 상기하는 3일 동안 교회는 교회가 상중(喪中)에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종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카롤링거 왕조 시대인 750~887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입니다.

또한, 소위 ‘딱따기’ 사용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종을 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본받아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멀리하며 검소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제수품 60주년·50주년 축하드립니다

교구 사제단의 단일성은 물론 주교와 사제들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주간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가 3월 28일(목)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있습니다. 성유 축성 미사 후 명동대성당에서 사제수품 60주년·50주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김병학
라파엘 신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태 5,3)



김정남
바르나바 신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 4,13)



황홍복
요셉 신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 4,13)

손희송(베네딕토) 주교, 제3대 의정부교구장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3월 13일(수)에 서울대교구 손희송(베네딕토) 주교님을 의정부교구장에 임명하셨습니다. 이에 주교님은 현 의정부교구장이신 이기현 주교님에 이어 제3대 의정부교구장으로 착좌하실 예정입니다. 손희송 주교님은 1957년 경기도 연천 출생으로 1986년 사제품을 받으신 뒤, 20여년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교수로 재임하며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2012년부터 사목국장으로서 봉직하셨으며, 2015년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주교서품 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교구 총대리 주교를 맡고 계시며,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이사장,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이사장,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3월 24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사순 시기 이웃 돕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면서 희생하고 특별히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단식한 몫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2차 헌금으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3월 29일)에는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새 보좌주교를 위한 9일기도 봉헌

오는 4월 11일(목)에 새로이 보좌주교로 서품 될 이경상(바오로) 주교님을 위한 9일기도를 요청하오니 본당과 각 기관에서는 신자들과 수도자들에게 알리시어 아래와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 4월 2일(화)~10일(수)까지(9일간)

내용: 주교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90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각 1번)

새 보좌주교를 위한 영적예물 요청

이경상(바오로) 주교님을 위한 영적예물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많은 신자들이 동참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예물: ① 미사 및 영성체 ② 목주기도 ③ 성체조배 ④ 희생 ⑤ 주교를 위한 기도

이경상(바오로) 보좌주교 서품식

때, 곳: 4월 11일(목) 오후 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축하식: 미사 후 대성당

용기장학회 기금 출연 안내

용기장학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장학회입니다. 아시아, 특히 북방선교에 투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장학회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신언 몬시뇰 / 이사장: 정순택 대주교

용기장학회 기금 출연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정한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계좌: 국민은행 375301-04-076713, 우리은행 454-037208-13-001, 신한은행 140-008-715396, 농협 386-01-012782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5년 3월 30일 이종순 요셉 신부(46세)

교구청 알림

상설고해소 휴무 안내

때: 3월28일(목)~4월7일(일)
문의: 02)774-1784 명동대성당 사무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남준우 개인전: 1전시실
전경애 개인전: 2전시실
신경미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3월27일(수)~4월4일(목)

사목위원 양성 연수

대상: 본당 사목위원(회장단 포함)
때, 곳: 1차 4월19일(금) 13시~17시 · 2차 4월20일(토)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1인 2만원(4월21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4년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뮤지컬, 해금, 기도를 시로 쓰기, 우리의 마음건강을 위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하는 법, SNS를 이용한 신앙인의 글쓰기, 주님의 빛으로 그린 그림(사진찍기), 자기이해와 자기수용, 영적글쓰기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 문의: 02)727-2126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직장인을 위한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4월13일(토) 10시~16시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 / 문의: 010-4565-8898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안내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3월25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4월2일(화) 오전 9시부터	1코스 말씀의 길 (명동대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4월6일(토) 오전 9시부터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4월16일(화) 오전 9시부터	3코스 일치의 길(일부구간) (노고산~삼성산성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4월4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 (코스트홀) / 집전: 이준호 신부(미국 알래스카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제2기 가톨릭미술해설사 입문과정 수강생 모집

대상: 만 20세 이상 천주교 신자
때: 4월8일~6월3일 매주(월) 19시30분~21시(5월6일 제외)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 501호
접수: 3월17일부터 문화화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회비: 10만원(8회 일괄납부, 입금순 선착순 마감)
제2기 가톨릭미술해설사 입문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 한해 도슨트 봉사자 지원자격이 주어지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도슨트 봉사자를 선발합니다
문의: 02)751-4108 홍보위원회

가톨릭교육자회 소개 및 행사(학교사목부 CCE)

1) 가톨릭교육자회 안내
가톨릭교육자회는 학교 신앙인 교직원(교사·행정직)들을 위한 모임으로, 예수님을 닮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교육자회>, 중·고등학교를 위한 <중등교육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피정·성지순례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가톨릭교육자의 날 신청
내용: 신앙인 학교 교육자들이 모여 미사·특강과 함께 하느님이 주신 교육자의 소명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 /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신자라면 누구나
때: 4월20일(토) 9시~16시, 계성초등학교(전철 9호선 신반포역) / 회비: 3만원

3) 가톨릭교육자회 신규가입
문의: 02)566-5456, 02)553-7320 학교사목부

4) 가톨릭교육자의날 접수문의
홈페이지 팝업창(www.kycc.or.kr) 참조

환경사목위원회 생태영성학교

1) 제44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대상: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할 사람
내용: 「찬미받으소서」 1장~6장과 후속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관련 강의, 하늘뫼물뱀 소개, 수로미사 등 / 신청방법: 전화접수 및 환경사목위원회 이메일(ecocatholic@hanmail.net)
때: 4월2일~5월7일 매주(화) 14시~16시(총 6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회비: 1인당 4만원(계좌: 우리은행 1005-402-907778) 입금 후 확인 연락 요망
접수: 3월22일(금)까지 마감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2) 제45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대상: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할 사람
내용: 「찬미받으소서」 1장~6장과 후속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관련 강의, 하늘뫼물뱀 소개, 수로미사 / 회비: 1인당 2만원
때: 4월2일~5월7일 매주(화) 19시30분~21시(총 6회)
곳: 구파발성당 / 접수: 3월22일(금)까지 마감
신청방법: 구파발성당 사무실(02)389-1501)에 신청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분당) 미사
때, 곳: 1411차 미사 3월2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벤트 기획할 분당: 서울대교구 재령 분당, 서흥 분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讎분당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3월29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 문의: 02)727-2415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노들담수녀회 청년 일일피정 '숨' / 문의: 010-3930-6730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15명
때, 곳: 4월13일(토) 14시~18시, 노들담 교육관(가회동)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4월20일~22일·4월24일~26일·4월28일~5월1일(추차도)·5월2일~4일·5월6일~8일·5월17일~19일·5월22일~24일·5월26일~29일(주)·6월21일~23일·7월20일~22일(우도해변), 제주성지순례 6월16일~18일·7월1일~3일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토아올라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3월26일 이상기 회장 4월2일 양승국 신부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순례	5월14일~16일, 5월27일~29일, 6월10일~12일, 6월22일~24일, 7월19일~21일, 8월21일~23일, 9월1일~3일
성지순례	4월13일~16일, 4월25일~28일, 5월2일~5일, 5월8일~11일, 5월19일~22일, 6월3일~6일, 6월15일~18일

피아골 피정	6월21일~22일	소록도	5월24일~25일
제주교구 성지순례	6월26일~29일		
홍성남 신부와 성지순례	북해도 6월3일~7일 아키타 9월2일~6일		

교구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탐방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예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국내	4월13일~15일·6월15일~18일(수도원·대구 17곳), 5월4일~7일·7월13일~16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 6월28일~30일(원주 7곳·청주 5곳·안동 7곳) /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국외	5월15일~27일, 바티칸·이탈리아·독일 수도원(대한항공) / 회비: 625만원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4월19일(금)~21일(일),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성골분반외방선교회 십자가의 길
때, 곳: 3월29일(성금요일) 14시~16시, 골분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문의: 02)929-2977

도미니코 봉쇄수도원 1박2일 젊은이 피정
대상: 35세 미만 미혼 남녀 / www.dominicocorea.com
때: 5월18일(토) 14시~19일(일) 14시30분 / 회비: 7만원
문의(접수): 043)651-2906, 010-6561-2906

제22회 젊은이 성령축제 참가자 모집
성령강림대축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모든 가톨릭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 회비: 1만원(점심식사 제공)
주제성구: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골로 3,13)
때, 곳: 5월9일(일) 10시~17시,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문의(접수): 010-7185-5368 청년성령쇄신봉사회

교육

미사 전례를 위한 오르간 레슨
곳: 흑석동성당 / 문의: 010-4964-5274 제14동작지구
성물·묵주 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벨칸토 성악 교실(곡악성가연구소)
성가·가곡 / 초보자 환영
때, 곳: (금) 10시, 대학로 / 010-2252-2974 강신옥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4월1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쿠나소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말씀: 김영수 교수 / 주제: 나이 들과 희망
때, 곳: 4월7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4월17일~5월1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명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생활부적응 및 학습 장애·부진을 겪는 아동모집
내용: 어린이 행복지원 프로그램(초중고 사회성·자기생활관리·섭식·기초문해력·공동생활 지도)
곳: 전철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 / 문의: 02)735-3633 (hannuricenter@hanmail.net) 한누리아동센터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문(우편) 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추가모집: 3월31일(일)까지 원서접수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감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영어회화, 토론·글쓰기, 사진, 한국사능력검정, 바리스타, 코딩 등 / 봉사자모집: 감정고시(사회과목), 수능학습지도, 코딩수업 가능한 분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가톨릭독서아카데미 수강생 모집(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때, 곳: 19시30분~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회비: 각 15만원(총8회) / 문의: 010-2309-4509

1) 뉴스문해력 키우기

개강: 4월9일(화) / 김지영(전 경향신문 편집인)

2) 생활과 문학-일상 속 글쓰기

개강: 4월11일(목) / 김재홍(시인·평론가)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

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10-8477-6688

내용: 일반독서, 인문독서, 영적독서(각 6주 과정)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때, 곳: 4월4일부터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 회비: 각 단계별 10만원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2024학년도 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4월15일(월)~26일(금) / 전형일: 5월17일(금)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 작곡 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해외가톨릭보딩스쿨 학교 설명회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학교설명회	4월13일(토) 오전 11시(예약 필수)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아일랜드(6개월 이상)	
여름캠프	초3~중2 / 남 더블린, 여 보스턴	

예수회 정기강좌 피정

1)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정기강좌 / 문의: 02)3276-7799
 때, 곳: 14시(파견미사 16시), 예수회센터

4월11일(목)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 이해와 실천적 적용	권오면 신부
5월9일(목)	'상처와 용서' 다시 보기	송봉모 신부
6월13일(목)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의 꿈과 환시	홍기영 교수

2) 영신수련동반자 양성센터 4박5일 피정

때, 곳: 7월17일(수)~21일(일)·7월26일(금)~30일(화), 예수회센터 / 문의: 02)3276-7790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온라인 병행)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4월11일부터 매주(목) 10시30분~19시40분(6주)
 곳: 한국CLC 강의실·온라인 Zoom
 4월4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한국CLC

모집

안칠라도미니 그레고리오 성가단원 모집

대상: 그레고리오 성가에 관심 있으신 여성
 곳: 시스마나음악원(주최, 신촌) / 010-9729-2346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때, 곳: 평일 10시~13시(요일 휴업), 센터 내 B1
 문의(접수): 070-7209-2918 유선 및 온라인 접수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3월27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3월26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3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3월27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회미사입니다
 때: 3월25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평화묘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묘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4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모주 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때, 곳: 4월6일(토) 오전 11시, 평화묘원(내) 봉안당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 문의: 02)2241-7841, 2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3월25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제: 김병규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문종원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일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가톨릭여성연합회 3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홍근표 신부(요셉나눔 재단법인 사무총장)
 때, 곳: 3월26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2024년 혜화동성당 혼인미사 예약

혼인미사: 매주(토) 11시, 14시 / 문의: 02)764-0221
 연중 수시 접수 / 성당 홈페이지 참조
 우수한 건축양식과 미술품으로 가득찬 혜화동성당에서 혼인미사 예약을 받습니다 / 혼인미사 전용 신부대기실, 폐백실, 주차장, 피로연장 완비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숫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TCI(기질과 성격)를 통한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4월6일(토) 13시~16시 회비: 9만원(검사비 포함)
전문	가족치료, 개인, 부부, 모태놀이치료, 종합심리상담
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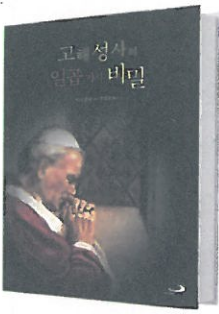
직원모집

서울대학교 성 앵베르 센터(피정의 집) 직원 모집

곳: 진관동 /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인원: 미회원 2명(숙소관리·미화업무 등), 방호원 1명(전기·가스·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 이메일 문의
 3월27일까지 이메일(imberty@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타교구는 본당 주임신부님 추천서로 대체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	3월10일(일)~2025년 2월22일(토) 14시~16시(월2회)	본원(정릉)	010-3944-1375 지 크리스티나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4월7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고해성사의 일곱 가지 비밀

비니 플린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208쪽 | 1만5천원
문의: 02)02-945-2972, 010-2572-1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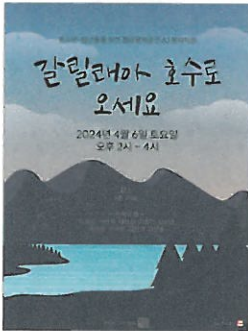
저자가 말하는 '일곱 가지 비밀'은 고해성사와 우리 사이의 장애물들을 멀리 날려버리는 일곱 개의 폭탄과도 같다. 똑같은 죄를 계속 고백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낙담해서 마지못해 겨우 고해소에 갔거나 어떻게 하면 고해를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한 적이 있다면 분명 이 책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신간
간추린 가톨릭교회사 개정판

김영식 지음
불휘미디어 | 268쪽 | 1만7천원
문의: 055)244-2067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톨릭교회의 역사는 자기 가족의 역사와도 같기에 당연히 그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저자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가톨릭교리신학원,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음악피정
청년문화공간JU 4월 음악피정

일시: 4월 6일(토) 14시~16시 / 무료 입장
장소: 청년문화공간JU 1층 카페
문의: 02)338-7830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청년문화공간JU에서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음악 피정을 진행한다. 4월에는 '갈릴래아 호수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은혜의 딸'(단장: 이형진 가브리엘)과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자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
우리 가곡으로 만나는 '로미오와 줄리엣'

일시: 6월 21일(금) 11시 · 19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2회 공연)
입장료: 전석 5만원
문의: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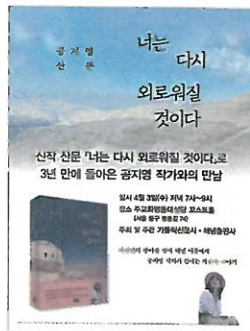
시가 있는 무대, 서울시합창단 <가곡시대>는 시대의 감성과 정서, 예술이 짙게 밴 고유의 성악곡인 가곡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 선보인다. 방송인 이금희 씨의 편안한 진행과 서울시합창단의 독창과 중창이 어우러져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뮤지컬
낭만별곡

일시: 3월 19일(화)~6월 9일(주일)
장소: 예스24아트원 2관 / 문의: 02)6925-0419
입장료: R석 6만6천, S석 5만5천원, A석 4만4천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5% 할인

세종 즉위 전, 청년 '이도'의 기록은 많지 않다. 책을 읽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이도가 악기 연주를 즐겼다는 태종실록의 기록을 모티브로 세종과 함께 조선 음악의 기틀을 세운 '박연'이라는 실존 인물과 '예성'과 '동래'라는 허구적 인물로 상상력을 더한 픽션 사극이다.



북토크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공지영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일시: 4월 3일(수) 19시~21시
장소: 명동대성당 게스트홀 / 문의: 02)778-7671
티켓 신청: 온라인 양식 작성(<https://url.kr/8smyzd>)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 새겨진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 마주한 깨달음, 저자는 마침내 스스로의 고통과 어둠으로부터 회복하는 길을 만나다. 흔들리고, 지치고 무너진 이들, 고통과 상실 속에 자신만의 광야를 밤새 헤맨 이들에게 공지영 작가가 깊은 위로와 지혜를 전해줄 것이다.

신청 큐알(QR) 스캔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전신자 부활맞이 대청소 및 국수잔치

일시 : 3월 24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개인 준비물 : 걸레, 고무장갑

청소 구역	구역
대성전 1층-2층	4, 자부회
제의방쪽 창문, 사무실 뒤 계단	양업회
지하소성전 및 통로	1, 청년
지하식당, 이레밴드실	6, 10
지하주차장	이레밴드
교육관 1층	8, 연성회
교육관 2층	연남, 기타
교육관 3층	3, 7
육각계단	2
주차장 및 화단 주변	5
화장실 천장, 교육관 계단, 엘리베이터 내부	9, 대건회

◎ 성삼일·주님부활대축일 전례 안내

3월 28일(목) 주님만찬성목요일	오후 8시 - 주님만찬저녁미사 (미사 후 성체조배)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을 확인바랍니다.
3월 29일(금) 주님수난성금요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단식, 금육) 오후 8시 - 주님수난예식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3월 30일(토) 파스카성야	오후 8시 - 파스카성야미사 (준비물 : 부활절예물) * 오후 3시 어린이미사 없음
3월 31일(주일) 주님부활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주일학교), 오후 6시 * 오전 7시 미사 없음

* 성삼일(3월 28일~30일)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사순 봉헌카드 봉헌

그리스도 수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도와
단식,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신 사순 봉헌카드를
성전 앞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파스카 성야 미사에 봉헌됩니다.

* 제출기간 : ~ 3월 27일(수)까지

◎ 연령회 미사 : 4월 2일(화) 오전 10시

◎ 성모신심미사 : 4월 6일(토) 오전 10시

◎ 여성울프레야 : 3월 26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일치의 모후Pr. 레지오 단원 선서식

일시 : 3월 26일(화) 오후 7시 40분 / 305호
선서자 : 유정훈 안드레아, 홍상표 영주바오로

◎ 2024년 전신자 영성서적 읽기

1. 알고 싶은 가톨릭 신앙 I, II
2.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
3. 자기 자신 잘 대하기

* 도서를 구입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3월 24일(주일) ~ 4월 6일(토)

◎ 청년단체 홍보 부스

일시 : 3/24(주일) 교중·청년 미사 전, 후 / 성당마당

◎ 청년 부활 마니또

일시 : 3월 31일(주일) 청년 미사 후 / 지하식당
대상 : 청년 누구나(사순 성경필사 참여한 청년 필참)

◎ 청년 레지오 셋별Pr. 단원 모집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라 함께 더욱 더
행동하고 기도드릴 청년 단원을 기다립니다.
회합 : 매 주일 오후 4시 30분 / 206호
문의 : 안토니오 단장 (010-5377-8909)

◎ 2024년 연희동성당 요리대회 개최

남성 연령세대별 5개팀이 요리실력을 뽐냅니다.
요리대회 후에는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됩니다.
모든 연희동성당 신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4월 7일(주일) 오후 4시~8시 / 지하식당
문의 : 기획분과장 (010-6470-4114)

◎ 오늘은 사순절 이웃돕기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3. 1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1,994	624 (31.3%)	576 (28.9%)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3월 11일~17일)

곽선모	오천원	익명	일십만원
이경옥	이십만원	익명	오만원
박정수	오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익명	일십만원	강균식	오만원
박영희마리아			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5주일)

교 무 금9,191,000원
주 일 헌 금6,256,000원

입당 119 봉헌 216,210,340 성체 334,169,152 파견 115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 이까